

이재명 정부,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20.2조+10.3조 세입경정 총 30.5조 지역화해 확대·장기 연체 빚 탕감 건설경기 활성화 2조7천억원 투입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지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 (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 (4천296만명) 15만원, 차상위층 (38만명) 30만원, 기초수급자 (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만원어치 쿠폰을 받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방안

소득상위 10% (512만명)	1차 지급금	2차 추가지급	합계
일반국민 (4,296만명)	15만원	-	15만원
차상위 (38만명)	30만원	10만원	40만원
기초수급자 (271만명)	40만원	10만원	50만원

지원규모 (국비) 8.5조원 (6.6조원) 4.6조원 (3.6조원) 13.2조원 (10.3조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 명)은 1차에서 2만 원 추가 지원

연립뉴스 자료: 기획재정부
* 예이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

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세 정부 출범 보름 만이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한다. 세출은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예산 67조3천억원에서 70조원으로 불어

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지게 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의 초점은 '경기 진작', 무엇보다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데 맞춰졌다.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

업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경정도 10조3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조4천억원에서 37조1천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세입감액 경정은 2020년 이후로 5년 만이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침체 심해...국가 재정 사용할 때”

정부, 2차 추경 국무회의 의결

“민생소비쿠폰, 소득지원·경기부양배합” 민주·혁신당 “민생살리기 큰 도움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 침체가 심해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난해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다.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지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이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이건 이념과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경비를 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최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하는데,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거나 하느냐,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여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다)”며 “저는 반사적 혜택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환영 입장을 밝히고 “국회가 신속히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 국민에 대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라는 보편 지원 원칙 속에 취약계층,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에 추가 지원한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추경안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며 “불황의 늪에서 좌절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의원 전체 입장을 내 “이번 추경에 우리 당이 주장한 민생회복지원금과 채무 조정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민생을 살리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추경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예산이 반영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급적 그 예산은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는 데 쓰여야지, 산소호흡기를 다는 식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전남도, 핵심현안 국정과제 반영 총력

지역 국회의원 찾아 설명·협조 요청

전남도가 19일부터 이틀간 국회를 방문,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핵심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문금주 국회의원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실을 찾아 핵심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과 대통령 지역공약 실현을 위해 발굴한 주요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건의 과제는 ▲통영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순천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등 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등이다. 앞서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도·시·군과 22개 시·군이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핵심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전남 미래발전 건의과제' 100건,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전남공약 이행 주요과제' 193건을 시·군과 함께 발굴해 관계부처 등 건의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지역 국회의원과 '원팀'이 돼 지역 핵심 의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집중 건의하고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과제에 빠짐없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재정기자

“에너지고속도로” 2030년 첫 개통 운곽

산업부, 국정기획위에 업무 보고 전남 'RE100 산단' 조성도 본격화

전남도가 구상하고 추진해온 '에너지고속도로'의 2030년 첫 개통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에너지고속도로 추진 계획 등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2030년경 첫 개통 목표 달성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총력 대응 계획을 밝힌 것

으로 전해졌다. 흔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권 생산 전기를 핵심 수요인 수도권으로 나르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38.6GW인데 이중 약 20%인 7.1GW가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 분포돼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양적 보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신규 계획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에 드라이브를 건다. 아울러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협력사들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요구 중인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김재정기자·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광주역앞 중흥6거리코너(중흥동712-14외2)
대형빌딩 상업지628평 지하4층지상10층
건평344평 연건평3,778평 승강기3대 주차150대
급매220억(조정가능)
공공기관, 의료시설, 쇼핑센터 등
무슨 업종이던 좋은 위치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